

사회

# 참극 부른 '이벤트 결혼'

## 나주 30대 "가출 아내 내놔라" 흥기 휘둘러 동포여성 도우려던 몽골인 여성 애꿎은 죽음

외국에서 시집온 동포 여성을 도와 주려던 몽골인 여성이 부인을 찾으려 온 한국인 남편의 어이없는 폭력으로 이국에서 삶을 마감했다. 또 이 남편의 폭력으로 단란했던 다문화가정마저 산산이 깨져 주위를 숙연케 하고 있다.

15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7시20분께 양모(34)씨가 나주시 이창동 한 공동주택 몽골인 K(여·25)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흥기로 K씨의 등을 5차례 가랑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지난해 3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K씨는 같은 몽골 출신인 양씨의 부인(21)과 친하게 지내던 고향 언니다. 양씨는 말리던 K씨의 남편 하모(40)씨에게도 흥기를 휘둘렀다.

이날 양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사흘 전 집을 나간 몽골 출신 아내가 머무르고 있는 K씨의 집에 갔다가 "술

에서 깨면 부인을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흥기를 휘둘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부모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던 양씨는 지난해 말 약 1000만원을 지불한 뒤 광주의 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지만, 결혼 직후부터 농촌생활을 힘들어하던 부인과 자주 갈등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주먹까지 휘두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아내가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씨는 한국말이 서투른 아내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잇따르는 것은 배우자의 출신 국가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성사시키고 보자는 식의 '성급한 결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결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다문화사회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결혼의 비극적 결말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성공은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유지'인 만큼 적합한 결혼인지를 잘 고려한 상호 소개 등 현재의 결혼성사를 위한 이벤트성 국제 결혼은 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등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의 이혼건수는 지난 2004년 3300건에서 2008년 1만1255건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혼 사유는 외도와 가정폭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중앙초등학교 측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 학교 내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문 앞에 다소 위압적인 경고문을 게시하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 "무단 출입자 유괴·성폭행 우려 신고하겠음" 초등 교문에 살벌한 경고문

### 광주중앙초등학교 "유괴적으로 바꾸겠다"

광주중앙초등학교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학교 내 아동 성추행 및 성폭행이 발생하자 교문에 경고문까지 게시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경고문의 내용이 위압적인데다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학교 측은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인만큼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의 교문에는 '수업시간

중 무단 출입자에 대해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우려자로 신고하겠다'는 다소 위압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학교의 허락 없이 교문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사실상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겠다는 것이 다.

인근 주민 김모(53)씨는 "학교에서 자체적인 방범활동이나 CCTV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렇게 성인들을 범죄자처럼 보는 문구는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학원가 주변이다 보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입하는 사람이 많아 학교 자체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게시했다"며 "돌봄교실 등 오후 6시30분까지 학교내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아 위험성을 경고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경고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객관적이고 유화적인 문구로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동률기자lexian@kwangju.co.kr

## 나원침 (8121) 김중두



### 법원 "가려진 흉터도 장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15일 "이모(52)씨가 '인종의 흉터를 제외한 채 장해등급을 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긁수염만으로도 타인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씨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향뉴스

### 가솔 10대 친구들과 자기집 털어

○~가솔한 뒤 돈이 떨어지자 자신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철없는' 10대 3명이 경찰서행.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윤모(16·3년)군 등 3명은 지난 9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모 아파트 윤군의 집에 함께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금반지, 금목걸이 등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윤군 등은 가솔한 지 한 달만에 생활비가 바닥나자 범행을 모의했는데, 경찰은 친족 사이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윤군을 불입건할 방침.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목포 립살롱 '마담 노트'

# 50여명 성매수 시인

### 대부분은 부인

목포 립살롱 성매대 장부 파문(본보 9월 15일자 6면)과 관련, 이른바 '마담 노트'에 기재된 고객 중 일부가 성매수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은 H 립살롱 마담이 작성한 노트에 이름이 적힌 고객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50여명이 성매수를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명단에 오른 고객 400

명 중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지고 추가 비용이 지급된 기록이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수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고객들이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은 지난 6월 성매대를 나간 립살롱 여종업원과 손님 간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매대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립살롱을 압수수색해 마담이 갖고 있던 거래 장부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부상·고문 후유증 ... 5·18 유공자 자살

### 30년간 우울증 등 시달려

5·18 당시 입은 부상과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5·18 유공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4일 밤 11시에 광주시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주차장에서 구속부상자회 회원 지모(56·여수시 율촌면)씨가 극약을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새벽 3

시계 쉰졌다.

지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포에 사입차 갔다가 계엄군에 붙들려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이후 삼정교육대에 끌려가 4주간 혹독한 훈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지씨는 지난 30년 동안 우울증, 불면증, 신경통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극약을 마신 14일 구속부상자

회 사무실로 "꿈에 항상 군인들이 나타나 구타합니다. 축산업에 실패해 생활고를 겪고 있고, 고문 후유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A4 용지 10매 분량의 유서를 우편으로 보냈었다.

5·18 구속부상자회 양희승 회장은 "경찰에 연행돼 고문받은 구속부상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극심하다"며 "우울증과 생활고 등의 이유로 2007년 이후 10명이 자살을 택한 만큼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오현섭씨 구속 기소

〈전 여수시장〉

### 이순신 광장·경관비리 6억 받은 혐의

### 뇌물 건넨 3명 불구속 기소

서중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5일 여수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수시가 추진한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의 시공을 맡기는 대가로 N건설 마모 회

장으로부터 현금 4억원을 받아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오 전 시장은 '이순신 광장 사업'의 시공 대가로 돈을 받은 것과 별개로 변제기일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고 마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혐의도 드러났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난해 5월 조영공 사업체인 N사 대표 남모(51)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여수시 야관경 관조명사업'의 시공업체로 N사를 선

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18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달아났다가 도피 60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마 회장과 남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여수시가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 과정에서도 오 전 시장이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서류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오 전 시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승용 의원 측근에게 7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주승용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테마형 ·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차 10월 1일 2차 10월 4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34-0234 직영 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